

李白的將進酒 研究

郭 利 夫*

目 次

- | |
|-------------|
| I. 序 論 |
| II. 本 論 |
| 1. 詩句의 大意 |
| 2. 時代的 背景 |
| 3. 思想性 |
| 4. 藝術性 |
| 5. 作品의 製作時期 |
| III. 結 論 |

I. 序 論

中國에서 현존하는 先秦古書中에는 술에 대한 서적은 많지 않다.

중국의 가장 빠른 문자인 甲骨文과 金文에는 酒자를 간단히 “酉”자로 기록되어 있으니 술병 모양이다.”

중국문학사에서 최초의 문학작품인 「詩經」과 「楚辭」에서 모두 “酒”를 읊었으니, 그것은 전체 시가의 심분지일이다.” 숫자상으로는 많지 않지만 「國風」詩 보다는 「雅」詩에 많다는 점이다. 「國風」詩는 대부분이 民歌이지만 「雅」詩는 사대부들의 詩라는 것이니, 그때는 술은 사치품이어서 일반 서민들에게는 술 마실 기회가 적었기에 자연히 「雅」시에 많게 된 원인이다.

屈原의 辭賦中에서 음주가 쓰여지지만 자기가 직접 술 마신 것이 아니고 음주자에 대해서 묘사만 했다.” 非飲酒者도 부득이 술에 대해서 쓰지 않을 수 없었으니 그 만큼 비중이 컸다는 것을

*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Dept.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Cheju Univ., Cheju-do, 690-756, Korea)

1) 何滿子, 「醉活酒文化」香港, 商務印書館, 1991, p. 18.

2) 上揭書, p. 46.

3) 屈原: 「漁父辭」, “舉世皆濁我獨清, 衆人皆醉我獨醒, 是以見放”.

증명한 셈이고, 독야청청의 상태다.

中國의 歷代 저명한 애주가 중에는 文人들이 비교적 많다. 상류급으로는 三曹(操·丕·權 父子), 陶淵明, 李白, 杜甫, 白居易, 蘇東波 등이 있다. 詩人 三大家는 晋代의 陶淵明, 唐代의 李白과 白居易(樂天)이지만 그 중에서 첫째는 李白이라고 하겠다.⁴⁾

世人이 공인할 만큼 돌출된 李白은 술 마셨을 때는 흥취가 勃發하였고 才思가 橫溢했으니 붓을 들면 神들린 사람 처럼 一筆揮之했다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이다. 「酒의 文學」에 관한한 盟主로, 陶淵明 이래 「酒의 찬가」를 이백과 비견할 자는 없었다.

李白은 애주가로서 자칭 “酒中仙” 이라고 한 것은 너무나 유명한 別號이다. 杜甫도 「飲中八仙歌」 등에서 그것을 노래 했으니 분명한 증거이고, 盛唐期의 時代的 분위기의 所産인 것이다.⁵⁾ 酒中仙은 略稱해서 酒仙이라고 하는데 李白의 別稱이지만 또한 酒豪라는 뜻으로 보통명사화되어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다.

李白의 현존한 1050수에 음주에 대한 것은 170수이니 百分之十六이며⁶⁾ 시에만 보이는 酒자는 144面이나 되며 詩題上으로만 볼때는 50수가 된다.⁷⁾ 이처럼 이백과 술은 일생동안 밀접한 관계로 생활의 일부분이라고 할만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술에 대해 詩文을 썼기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李白의 飲酒詩中에서 「將進酒」를 선택한 것은 朝鮮 宣朝 때 松江 鄭徹의 「將進酒辭」가 있어서 우리들에게 익숙했고, 또한 「唐詩三百首」, 「古文眞寶」 등에 실릴 정도로 우수한 작품이기 때문이며 酒仙의 一面을 看破하기 위해서이다.

李白의 飲酒詩文은 너무 많아서 本稿에서는 일부분을 언급하고 다른 논문이 필요하다.

II. 本 論

1. 詩句의 大意

서술의 편의상 全詩를 감상하고 各 字句 및 詩句의 注釋 및 語釋을 하며 大意를 파악하는데 미진한 것은 사상성 및 예술성 등에서 보완하겠다.

將 進 酒

君不見黃河之水天上來，奔到海不復回。
君不見高堂明鏡悲白髮，朝如青絲暮成雪。

4) 松浦友久, 「李白」東京, 社會思想史, 1980, p. 151.

5) 杜甫, 「飲中八仙歌」, “李白一斗詩百篇, 長安市上酒家眠, 天子呼來不上船, 自稱臣是酒中仙。 謔李白”, “痛飲狂歌空度日, 飛揚跋扈誰雄。”

6) 郭沫若, 「李白與杜甫」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72, p. 306.

7) 李錫浩, 「李白과 道敎」서울 集文堂, 1981, p. 121.

人生得意須盡歡，莫使金樽空對月。
 天生我材必有用，千金散盡還復來。
 烹羊宰牛且爲樂，會須一飲三百杯
 岑夫子，丹丘生，進酒君莫停。
 與君歌一曲，請君爲我傾耳聽
 鐘鼓饌玉不足貴，但願長醉不用醒
 古來聖賢皆莫，惟有飲者留其名
 陳王昔時宴平樂，斗酒十千恣歡譁
 主人何爲言少錢，徑須沽取對君酌
 五花馬，千金裘，呼兒將出換美酒，與爾同銷萬古愁

그대 못보았는가? 황하의 물 하늘에서 내림을, 세차게 흘러 바다에 쏟아져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그때는 못보았는가? 밝은 거울 속 백발 슬퍼하는 높은집 양반을, 아침엔 청사 갈던 머리 저녁엔 백설 되었네.

인생 뜻을 얻었을 때 환락 다할 것이니, 황금 술잔 빈 채로 달 앞엔 놓지 말지니.

하늘이 날 만드셨으니 꼭 쓸 때가 있을 텐데.

수 천금 써 없어도 돌아올 날 있으리.

염소 삶고 쇠고기 저며 한 판 즐기세.

술잔 한 번에 의당 삼백 잔은 마셔야지.

쑤선생, 丹丘씨!

술잔 지금 드리니 놓지랑 마시오.

그대 위해 노래 한 곡 부를지니.

그대는 귀 기울여 들으시구려.

음악 성찬은 귀한 건 아니니.

다만 오래 취하고 깨지 않기 바라오.

옛 부터서 성현들 다 적막했거늘.

오직 술 군만 그 이름 오래 남겼네.

옛날 曹植이 평락전에 잔치할 때는.

말술 만 잔 들며 마냥 즐겼었네.

주인이 주연에 인식할 수야 있오?

금방 술 사와 자네와 마시겠네.

五花의 말, 千金의 毛皮 옷, 아이 불러 美酒와 비껴오겠으니, 자네와 함께 마셔 만고의 수심 녹이리라.

「將進酒」의 「將」은 「鏘」으로 音讀한다.⁸⁾ 즉 보통은 「Jiang」으로 하지만, 이때는 「Qiang」으로 발음되는 破音字로써 「권하다, 칭하다」의 뜻으로 사용되니 권주를 의미하는 제목이다.

「將進酒」는 「惜空酒樽」이라고도 하며 「宋書」에는 漢代 鼓吹饒歌 十八曲이 「將進酒」曲이다.

8) 安旗, 「李白全集編年注釋」, 下, 四川省: 巴蜀書社, 1990, p. 297.

樂府詩集엔 「將進酒」古詞에서 장진주는 술잔을 이용한 것이고, 대개는 음주 방가를 말한다.⁹⁾ 첫句의 “君不見”은 樂府에서 많이 보이는 상투어로, 李白은 감정을自制지 못하는 경우에 쓰고 있다.¹⁰⁾

“黃河”는 世人이 주지하다싶이 중국에서 揚子江 다음으로 긴 강이다. 발원지는 青海省으로 甘肅·四川·寧夏·九省(區)를 통과하여 渤海로 들어간다. 中華民族의 발상지로 그 유역은 유명하니 요람이며 고대문명의 상징적인 강이기도 한다.

황하에 대해서는 노도와 같은 물결이 화살과 같고, 광풍에 어우러져 포효하는 듯한 물살은 예리한 칼날 같고, 황하의 물은 흰 구름에서 쏟아져 내린다고 여러 시인들이 읊고 있다. 대부분이 비유법으로 혹은 과장법으로 의인화하여 그 장관을 山水詩 혹은 邊塞詩를 썼다.¹¹⁾

王之渙의 「涼州詞」는 「出塞」(“黃河遠上白雲間, 一片孤城萬仞山”)로 더 알려져 있으니 西北 변경지대의 소모전쟁 양상을 쓴 것처럼 李白도 西南 변경지대에서 吐蕃과의 불의의 전쟁과 安史之亂까지 언급하고 있다. 黃河가 포효하는듯 분등하며 일사천리로 바다에 쏟아져 내린다는 것은, 小와大, 無와有, 虛와實을 결합 교직한 문학상의 기교이다. 또한 “黃河之水”는 시인 자신인 고향 四川에서 향시 보았었고 詩興도 일으켰었던 것이고, 방랑객으로 먼 타향 땅에서 보니 감회가 깊었다. 青年期에서 老年期를 지내는 동안, 出蜀하여 遠游하는 목적인 功業을 이룰 수 없는 시인 자신의 悲歌이다.

三句에서도 첫句의 “君不見”을 반복함으로써 시인 자신의 감회를 독자들로 하여금 소연한 자세를 취하게 하여 感情移入의 최대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덧없이 흘러가는 황하의 물에서 돌변하여 저택에 사는 士大夫들도 明鏡에 비치는 자신의 윤기나는 머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백발이 성성한 모양에 青春의 기쁨을 다 만끽하지도 못했는데 벌써 晩年이 되었다니 이 아니 슬픈 일인가? 그것도 아침엔 靑墨色 실날처럼 싱싱했던 것이 저녁엔 흰 눈처럼 변해버렸다. 草露같은 인생을 극단적으로 표현했으나, 佛家에서 얘기하는 영원에 대한 순간적인 人間生活을 형용했다. 또한 자연현상의 崇敬과 畏敬에 대해서 인위현상의 질곡에서 유랑하는 서민과 농민에 무한한 정감을 포함하고 있다. 黃·白·靑色の 萬華鏡에 비춰진 사회상은 술로 환락의 퇴폐적인 생활로만 잊을 수 있다는 역설적인 표현이다.

李白의 직선적이고 신랄한 비난보다 그의 詩友인 杜甫의 완곡하고 우회적인 三吏, 三別 詩에 잘 나타나 있으니,¹²⁾ 그 당시의 사회상을 유추할 수 있다.

“士”는 周代 봉건제도 중에서 귀족계급의 최저층이었고, “士”의 위에는 “大夫”이고, 아래는 “庶人”이었다.¹³⁾ 시인은 “高堂”으로 이른바 “士大夫”를 代置하고 있으니, 오늘 날에는 高級官吏

9) 王琦, 「李太白全集」, 上, 北京, 中華書局, 1990, p. 179.

10) 李白, 「梁甫吟」, 「行路難」二·三首, 「少年行」, 「笑歌行」, 「鞠歌行」, 「襄陽歌」, 「登高丘而望遠海」, 「魯郡堯祠送賈明府薄華還西京」, 「答王十二寒夜獨酌有懷」, 「携妓登梁王樓覆山孟氏桃園中」等

11) 王之渙, 「登鸛雀樓」, 「涼州詞」, 溫庭筠, 「塞寒行」.

12) 杜甫, 「新安史」, 「潼關史」, 「石壕史」, 「新婚別」, 「垂老別」, 「無家別」.

13) 余英時, 「士與中國文化」, 上海, 人民出版社, 1987, p. 84.

나 知識分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孔子는 가장 먼저 “士志于道”라고 하여 “士”의 개념을 정착시켰으니, 그 이래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각 시대의 선택된 고급계층이다.

李白이 出蜀한 것도 소위 “士大夫”로 적극적이고 유익한 一生으로 공헌하고자 했었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워낙 괴리가 심해서 퇴계(퇴카당) 문학으로 돌파하려는 건전한 사고방식의 일면을 은근히 보이고 있다.

“月”은 시인 자신의 고향의 상징적 의미로 일생동안 씬 없이 歌咏했다. 피수식어로 明月, 皎月, 素月, 夏月, 秋月과 수식어로 月光, 月色, 月華, 月明 등으로 썼고 淸光, 淸輝, 明光 등 간접적으로 읊었다.¹⁴⁾

“天生我才有用”은 그의 豪邁한 風格을 잘 나타낸 名句이다. 뜻을 못 이뤄 초라한 모습이지만 충천하는 기상이 있어서 “必”자를 썼으니 소용되는 바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이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의지 감정을 무의식 중에 살짝 피력하면서 오만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듯 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더 공고히 하고 있다. 수천금의 돈을 낭비하더라도 즉시 벌어들일 수 있다. 현재의 불우한 사정으로 零落해 버릴 수는 없다. 소탈한 듯 하면서 豪邁한 高聲의 詩歌이다. 염소 고기를 삶고 쇠고기를 저며서 최상의 요리를 장만하는데, 돈 걱정은 없다. 돈은 들고 도는 것이니 삼백잔을 마실 수 있도록 충분히 마련하자. 이처럼 과장법에 능수능란하니 그의 詩 등에서도 볼 수 있다.

한 번 주연을 베풀었다하면 모름지기 삼백잔은 마셔야하니 취기어린 언성은 곡조가 빨라지며 높기 마련이고 격식이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岑夫子, 丹丘生, 進酒君莫停”라고 호칭했다.

唐代에는 연회석상에서 吟詩放歌는 보편적인 일이었다. “岑夫子”에 대해서 岑參으로 보았지만¹⁵⁾ 近人 학자들은 岑勛으로 보고있다.¹⁶⁾ 夫子는 학자나 연장자에 대한 존칭으로 姓氏 다음에 붙이는 접미어이다. 또한 “徵君”¹⁷⁾이라고도 했는데 徵君은 隱士에 대해 붙이는 접미어이다. 丹丘는 元丹丘이며 隱者로 道士이다. 두 분이 다 李白의 좋은 선생님이었고 또 좋은 벗이었다.

李白은 그대들을 위해서 한 曲 부를 터이니, 경청하기를 원했으니, 격의없는 주연석상의 교제와 배반당자한 모습을 일신시켰다.

詩歌 중에서 또 詩歌를 삼입한다는 것은 파격적이니 혼치않은 일이다. 李白은 魏의 陳思王 曹植(192~233)을 문학과 정치적으로 매우 흠모했다. 그래서 그의 “歸來宴平樂, 美酒杜十千.”(『名都篇』) 인용하여 시인 자신의 시운이 불리 함을 소박하게 표현했다.

2. 時代的 背景

李白은 武后 長安 元年(701)에 추생하여 5세에 蜀으로 이주해 왔고 父親은 李客이었으니 나그

14) 松補友久, 前掲書, 1980, p. 64.

15) 大野實之助, 「李太白詩歌全解」, 東京, 早大出版部, 1980, p. 312.

崔仁旭 譯, 「古文眞寶」, 서울, 乙酉文化社, 1964, p. 106.

張基權, 「李太白」, 서울, 太宗出版社, 1985, p. 312.

16) 安旗, 前掲書, 1980, p. 297.

17) 劉亞玲, 主編 「中國歷代詩歌鑑賞辭典」, 北京, 中國民間文藝出版社, 1988, p. 367.

나라는 의미로 불려졌으니, 杜甫와는 家門이 사뭇 틀리다.

唐代에도 六朝나 隋代처럼 門閥을 중요시 했다. 官界에 들어가는데는 정식 관문인 과거에 응시해서 明經科, 進士科를 통한 등용문 통과 방법과 長安의 고관이나 혹은 지방의 官長에 접근해, 그 추천에 의하는 방법이 있었다. 또 官이나 武官의 길도 있었지만, 특히 변방 節度使들은 대부분 異民族었다.

玄宗이 즉위한 것은 唐朝가 건국하고서 약 80여년이 지난 先天 元年(712)이고 天寶 十五年(756) 肅宗에게 禪位할 때까지 장장 45년이나 在位했다. 역사상 가장 길고, 唐太宗의 「貞觀之治」에 비교해서 「開元之治」라고 말하니, 그 이후의 성세였다. 開元년간은 정치, 경제, 문화가 번성했고 사회는 안정되었기에 開元全盛日을 읊은 詩는 많다.¹⁸⁾

李白이 활동한 주요 시기는 玄宗과 肅宗시대였다. 번영과 안정을 누리던 절정기에 권력 통치집단도 문란하고 부패해졌다. 口密腹劍이라는 李林甫 재상에 의해서 정권이 조종되었고, 老年期の 玄宗은 楊貴妃(玉環)과 그 姉妹들에게 둘러싸여 荒淫無道한 생활을 하였고 정치에는 별로 관여하지 않았다. 변경지대에서는 소모적인 전쟁은 계속 되었기에 李白은 “長安一片月, 萬戶擣衣聲.”(「子夜五歌」)로 불의의 전쟁에 대한 백성의 심정을 완곡하게 표현하여 심심한 우려를 표명했다.

宰相 李林甫가 唐의 大權을 장악하고 있었으니 그는 음험한 奸相이고 佞臣이었다. 그는 집권 세력의 권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사기수단과 공포정치를 무소불위로 자행했다. 天寶 六年(747)에는 進士科 시험에서 한 명도 급제시키지 않도록 배후 조종을 해서 소위 “野無遺賢”이라고 호보활동을 했다. 李白은 蜀에서 禮部尚書 蘇琿이 益州長史로 좌천되어 부임할 때 도로에서 자신의 詩에 대해서 “此子天才英麗, 下筆不休, 雖風力未成, 且見專車之骨. 若廣以學, 可與相比肩.”라는 좋은 평가를 받은 적도 있고, 또한 그는 長安 조정에 趙蕤와 李白 두 사람을 추천한 적이 있다. 秦疏에서 조유는 제자백사 사상에 통달하고 李白은 문장에 탁월하다(趙蕤術數, 李白文章)라고 했으니, 대 문학가에게서 칭찬 받은 것을 매우 기뻐했었다.

李林甫 일파는 비교적 유능하고 정직한 정치인들을 갖은 박해와 타격을 주었으니 左相 李適之를 위시해서 수 천명이 타살, 피살, 자살하였고, 투옥되었다. 또한 西北 변경지대를 방어하고 있는 節度使 王忠嗣도 재능과 공적때문에, 모반했다는 죄명으로 漢陽 太守로 좌천시켰다가, 그곳에서 살해했다.

이러한 일련의 음모정치는 조야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으니 민심이 흉흉했다. 그들도 이러한 사실을 간파해서, 변방 지대에서 계속 불의의 전쟁을 통하여 해소시켰다. 玄宗도 변방 지역에서의 일방적인 혁혁한 전과에만 매우 흡족해 했다. 楊貴妃의 族兄으로 재상에 오른 楊國忠도 뒤질세라 전쟁을 도발했는데 雲南의 南詔를 토벌했는데 二十萬의 전사자 피해가 있었다.

天寶 十四年(755) 十一月에 安祿山이 范陽(現 北京)에서 長安을 향해 군대를 발진시킨 것이 소위 “安史之亂”이다. 황하를 건너 파죽지세로 33일만에 東都 洛陽을 점령했다. 그 전란으로 비옥

18) 李白, 「金陵酒肆留別」
杜甫, 「憶昔」.

한 황하유역이 황무지화 했다.

玄宗은 그 이듬해 蜀(四川)으로 부득이 동진하게 되었으니, 그 도중 馬嵬坡에서 시종부대의 병변으로 楊國忠과 楊貴妃가 죽었다.玄宗은 皇太子 李亨을 靈武로 가서 북방 영토와 황하유역을 회복하라고 했고, 永王 李璣에게는 揚子江 유역을 경영토록 긴급한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李亨은 靈武에서 스스로 황제에 즉위했으니, 곧 肅宗이며 年號를 至德이라 했고玄宗을 上皇天帝라고 尊號했다. 永王 李璣은玄宗의 제十六황자로서 어려서 모친 郭順儀가 죽으니 형인 李亨의 집에서 양육되었다.¹⁹⁾ 그는玄宗의 긴급 詔書를 받고서 荊州大都督과 開府儀同三司의 작함으로 출진을 신고하여, 天寶十五年(727) 九月에 江夏(現 武昌)에 도착했다.

李白은 天寶十一年(723)에 安祿山の 소굴인 幽州에 간적이 있고, 그곳에서 반란 준비상황과 발호하는 기세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조정에서 쫓겨난 逐臣이고 布衣에 불과했기에 盡忠報國의 심정만 있었지 궁중에 한 마디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니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는 매우 침통한 표정으로 幽州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宣城(現 安徽 宣城)과 秋浦(現 安徽 貴池)간을 배회하다가 天寶十三年(754) 五月에는 廣陵(現 江蘇 揚州)에서 청년 시인 魏萬(후에 魏源로 改名)을 만나서 함께 그 지역을 유람했고 詩도 넘겨주었다.

李白은 幽州의 상황을 “君主棄北海，掃地借長鯨”²⁰⁾라고 읊었으니玄宗이 맹목적으로 安祿山을 寵臣으로 여긴 결과였고 그를 長鯨으로 비유하였다. 일찌기 시인은 한 바탕의 반란은 피할 수 없는 정세라고 예측했었고 그 예감을 토로할 길은 詩 뿐이었으니, 단 3년만에 현실로 나타났다. 이때 그는 梁宋에서 가족과 함께 있었다. 정부군은 즉각 궤멸되었고 도주해버렸으니, 황하의 남북과 梁園이 함락되기 직전에 揚子江 쪽으로 단신 피난 길에 올랐고, 그 참상을 「奔亡道中，五首」로 지었다. 그는 風前燈火적인 국가의 운명과 처참한 백성의 고초를 「經亂後將避地剡中，留贈崔宣城，「古風 第十九首」 등의 詩로 통곡하는 심정과 애증의 감정을 아주 분명하게 썼다.

李白은 江南지역을 전전하며 피난생활을 한 후에, 최후에는 廬山에 은거했다. 이때는 潼關의 마즈막 방어선이 무너지고 長安까지 함락되었고 李亨이 宰位에 올라 年號가 至德으로 바뀐 시기였지만玄宗이나李白도 그 사실을 몰랐었다.

永王은 江陵에서 官署를 장악하고 장병을 모집하여 인심을 안심 시켰으니, 南方지역은 평온을 되찾고 北方지역을 지원하려고 했다. 이때는玄宗시대가 아니고肅宗이 임의대로 宰位에 오른 때이니 문제가 돌발한 것이다.

永王군대가 至德二年 正月에 尋陽을 통과하다가,李白이 廬山에서 은거생활을 하고있는 것을 알고,永王의 참모 韋子春을 세 번이나 그에게 보내서 幕府(참모)로 맞이했다.

李白은永王 군진에서 단 2개월 동안 참모 생활을 하면서 「永王東巡歌」十一首를 충천하는 기상으로 순진하게 지어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다. 그는玄宗과肅宗과永王 간의 모순은一切 모르고 동란의 진압과 민심의 안녕 등을 노래했다.

19) 開明書店, 譯編, 「二十五史」4卷, 臺北, p. 3397

20) 李白, 「經亂離後，天恩流夜郎，憶舊游書懷 贈江夏韋太守良宰」.

肅宗이 御史大夫 高適을 파견하여 永王을 토벌토록 했다. 그들에 의해 永王軍은 패배했고, 최후에 永王 등은 五騎의 말로 嶺南지역으로 도주하다가 永王은 체포되어 즉시 살해되었다. 그래서 형제지간의 불협화음도 해소되었다.

李白은 丹陽에서 永王 軍陣을 이탈했다. 그는 「南奔書懷」에서 자기가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던 혼란한 상태와 참혹하고 격렬한 장면을 비분강개하여 표현했고, “秦趙興天兵, 茫茫九州亂”이라 하여 형제지간의 싸움을 풍자했다. “秦은 肅宗의 집단이고, “趙”는 永王의 軍隊를 비유로 지칭하는 것이니, 安祿山の 반란군은 진압치 않고 兄弟之間의 싸움을 통렬히 시인은 비판했다. 또 마즈막 四句 “過江誓流水, 志在清中原, 拔劍擊前柱, 悲歌難重論.”로 이백의 실망과 분통을 표명했다.

李白은 彭澤(現 江西 彭澤)까지 도망쳤지만, 그곳에서 체포되어 尋陽의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러나 그는 詩·文으로 자기의 무고함을 친지들에게 써서 보냈다. 또한 그의 명성이 컸기 때문에 구명운동을 여론화 하기도 했다.²¹⁾ 이백은 현지의 崔渙, 宋若思허 肅宗 측근의 郭子儀 등에 의해서, “從璘附逆”의 죄명으로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夜郎으로 유배되는 감면 혜택을 받았다.

東西 古수를 막론하고 음주문화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특히 중국 문학상에서는 일반적인 일이다. 태평성대에는 사회나 개인이 다 신바람이 나서 어깨 춤을 추며 술도 甘酒가 되고 太平歌를 謠歌하기 마련이다. 암울한 시기에 좌절감이 팽배했을 때는 毒酒가 되고 음울한 노래를 부르게 된다. 그러나 李白은 「將進酒」와 같은 飲酒詩로 의미심장한 名篇을 남겼다.

3. 思想性

李白은 5세때 六甲을 외우고 10세때 百家書를 보았다.²²⁾ 이처럼 어려서부터 도교에 대한 분위기와 학습은 그를 도가적 특색을 지닌 시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약 15년 동안 奇書를 보았다.²³⁾

蜀은 황하유역의 齊魯文化와 揚子江유역의 南方文化가 융화된 곳이니, 孔孟思想인 儒家相想이 합쳐진 곳이고, 또한 분지로써 곡창지대였기에 유구한 역사와 독특하고 특색있는 문화가 발달했다. 司馬相如, 楊雄, 陳子昂, 趙蕤 등의 사상가와 문인이 배출되었다.

屈原의 辭賦에서 근간을 이루는 愛國, 愛民의 정신은 蜀文化에 영향이 컸으니 독특한 풍도를 지니게 하였다. 司馬相如의 대표작 「子虛賦」로 체제와 풍격이 屈原의 「離騷」와 비슷하다. 그러한 문화의 특색은 隋·唐代에까지 면면히 이어졌고, 또한 그 사상을 대표하는 인물은 李白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그는 忠君愛民과 君臣, 父子, 上下의 위계질서와 豪邁, 不羈하고 인생의 사소한得失을 도외시하고 大鵬이 天空을 비상하는 듯한 구애받지 않는 생활을 일생동안 영위하려고 했다.

21) 杜甫 「不見」 “不見李生久, 佯狂真可哀, 世人皆欲殺, 吾意獨憐才.”

22) 李白 「上安州裴長史書」, “五歲誦六甲, 十歲觀百家.”

23) 李白 「贈張相鎰詩」, “十五歲奇書.”

李白은 첫째 목적은 “仙”을 이루려고 노력했으며, 둘째는 “功名”을 이루려고 했다. “仙”을 못 이루면 “功名”을 담론했다. “功名”에 실망을 느끼면 음주를 매개체로 “頹廢”했고 은둔했다가 다시 “覺醒”하는 반복 과정이었다. 이처럼 儒家와 道家思想의 순환은 시대의 사상성과 연관된다.

宗教 思想面에서 唐代는 儒·釋(佛)·道 三教가 사회에서 가장 성행했는데, 그 중에서 道教가 으뜸이었다. 唐太宗 貞觀 十年(637)에 仰佛崇道 정책으로 道家에서 道教로 정착하게 되었고 唐皇室에 의해 더욱 융성해졌다.

道教는 老子(604?~? B.C)와 莊子(365~290 B.C)의 老莊思想 또는 老莊哲學에 근거하여 神仙說, 易, 陰陽, 五行 등과 함께 어우러 지면서 토착적인 종교가 되었다.

道教의 祖師로 간주하는 老子(李耳)역시 姓이 李씨였기에 唐朝 황제는 老子를 시조로 삼았다. 또한 老子를 玄元皇帝라고 존승했으며 「道德經」(老子)를 경전으로 삼았고 儒家의 경전과 함께 士大夫들의 필독서로 했다. 당시에 저명한 道士로는 瀋師正의 후계자 司馬承禎은 則天武后, 睿宗, 玄宗의 三代에 걸쳐 존승을 받았고, 玄宗은 그를 몇 번씩 궁중에 불러 法錄을 전수 받았다. 瀋師正 문하인 또 한 분의 高第인 吳筠은 玄宗의 부름을 받아 오랫동안 그 측근에 있었다. 그는 道士가 되어 翰林院 생활을 했으니 소위 “終南捷徑” 즉 고급관리가 되는 지름길로 성공한 셈이다. 이처럼 道士가 황제에 준하는 예우를 받거나 궁중에서 한림원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전국에는 도관이 많이 세워졌다. 시대의 사조가 그러하니 통치집단의 士大夫들은 도교를 신봉하거나 道士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道教界의 거물인 司馬承禎은 江陵에서 李白을 보자 仙風道骨이 있는 자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李白은 대단히 기뻐서 「大鵬賦」 등에서 그를 希有鳥로, 자신은 大鵬으로 묘사하곤 했다. 大鵬이 黑雲이 낀 天空을 飛翔할 수 없을 때는 임기응변하는 방법을 택했으니, 그것 또한 老子의 사상에 근간을 둔 것이고, 莊子의 大鵬의 우화와 비슷하다.

李白은 老子의 「道德經」의 원칙하에 詩歌를 짓기도 하였으니, 그 意趣는 매우 많이 표현되어 있다. 또한 縱橫家의인 一面도 또 나타나 있으니 그는 20세 전후에는 고향의 戴天山(一名 匡山)에서 修學할 때 현실에서 좌절한 趙蕤라는 隱逸思想家에게서 縱橫術을 배웠다. 李白은 그의 「長短經」(一名 長短要術)을 배웠고, 그 영향으로 一切 考試에는 응시하지 않았고 道士들과 皇族을 통해서 “終南捷徑”의 길을 택했으며 縱橫家로서 응지를 꾀려고 했으니 일생동안 잠재한 사상이다.

趙蕤의 「長短經」내용은 매우 풍부하여 정치, 철학, 역사, 군사, 법률 각 방면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 그것이 특징은 역사 경험을 총결산한 교훈에서 출발하여 자기의 사상론을 제기했다는 점에 있다.²⁴⁾ 그것은 유가사상을 위주로 墨家, 名家, 法家, 諸家의 學說 中에서 장점만을 채택했다. 그래서 「四庫全書」에서 그것을 雜家類에 넣었다.²⁵⁾

趙蕤는 「長短經」에서 唐代의 정치현실을 직접 비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정치사상은 정곡을 찔렀고, “時弊”에서 이론을 定立했다. 그는 먼저 “즉벌체제”의 君主專制 制度를 대담하게 비평을

24) 賈順先, 「四川思想家」, 成都, 色蜀書社, 1987, p. 162.

25) 「文淵閣四庫全書」, 臺灣, 商務書館, 849卷, 雜家類, 子部 155, p. 899-2.

가했다. 즉 “천하라는 것은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고 모든 사람의 천하이다.” 이것은 君主 개인의 전체정치를 부정하는 것이고, 천하의 모든 사람은 이익을 함께 향수할 수 있어야만 하고, 황제가 천하의 이익과 재산을 황제 집안의 사유물화해서 임의대로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李白은 그러한 환상적인 정치사상에 심취하여, 그것을 시행해 보려했다.

李白의 人生觀은 「代壽山答孟小府移文書」에서 돌을 의인화하여 피력했다. 기본적으로는 儒家와 道家의 혼합체이다. 시대사조가 그랬기 때문에 사대부들의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李白은 「長短經」의 사상과 司馬相如와 揚雄의 영향도 크게 작용했다. 그의 「淮南臥病書懷寄蜀中趙徵君蕤」에서 표명하고 있다. 政權을 전횡한 재상 李林甫와 兵權을 장악하고 동란을 일으킨 절도사 安祿山을 “高堂”, “明鏡”으로 통박했다.

“人生得意須盡歡, 莫使金樽空對月”은 퇴폐적인 사고라고 표면상 보일 수 있지만, 시인 자신은 진취적, 적극적인 일면을 추호도 가식없이 표현하고 있으니, 豪邁, 豪放한 그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莫”과 “空”의 이중부정으로 강인성과 강렬성을 내보이고 있다. 安史之亂에 대한 皇帝·王·士大夫들에게 “王霸大略”, “經濟之才”, “幸王之術”과 같은 李白의 縱橫家的인 정치사상론도 내포하고 있다 하겠다.

“天生我材必有用, 千金散盡還復來.”은 名拘로 李白의 功名欲은 강렬했다. 그가 존경했던 역사적인 인물들은 傅說, 呂尚, 管仲, 范蠡, 樂毅, 魯仲連, 信陵君, 張良, 韓信, 諸葛亮, 謝安 등으로 모두가 소위 “定國安邦”의 동량지재요 풍운아들이다.²⁶⁾ 그들도 대부분 실의의 시간을 극복했으니, 이백은 그들과 비교하기도 했다. 玄宗이 자신을 추방시킨 것이나, 張九齡과 같은 시인이자 정치가를 축출시킨 점도 보이고 있다.

제 九·十句에서는 응지를 품었던 曹植처럼²⁷⁾ 호쾌한 대연회이며 장쾌한 시귀이다. 이백은 曹植의 才能, 失意, 飲酒 등을 연계시키고 있다. 득이할 때는 五句의 “須盡歡”이고 실의할 때는 十句의 “三百杯”라고 하여 불운의 시기에는 은거하며 다음 호기를 포착하겠다는 진보적인 것이고 절대 퇴폐적인 것은 아니다. 曹植이 41세때 죽었으니, 李白은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았다는 각성으로 “羊”과 “牛”를 썼다. 이처럼 역사의 典故로 새로운 意境을 창출했다.

제 十一句에서 十四句까지는 은일생활에 만족해 하는 道士들과의 연회는 복잡다기한 회포를 풀 수 있는 자리이다. 李白은 崑崙에 대해서 계속 존경하는 징표로써 두首의 시가 있다. 「送崑崙君歸鳴皋山」, 「鳴皋歌送徵君」인데, 그 시에서 東漢 初年の 嚴子陵과 같이 고매한 인품과 백절불굴의 정신은 저의 귀감이 되고 계속 함께 살고 싶다고 했다. 元丹句 역시 道士로써 蜀에서부터 교우관계가 있어서, 또한 그에 대해서도 여러首의 시로 고상한 인품을 찬양했고 서로 왕래하면서 여러번 주연을 함께 했다. 道士들과의 교제는 더욱 李白을 老子思想에 심취하게 했다.

제 十五句에서 二十五句까지는, 李白만이 할 수 있는 기발한 착상으로 “詩中有詩”이다.

魏太和六年 陳王으로 封해진 曹植의 思想과 기호가 李白과 흡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시인이

26) 郭沫若, 前掲書, p. 54.

27) 曹植, 「野田橫雀行」, “中廚辦豐膳, 烹羊宰肥牛.”

“陳王”과 “斗酒十千”을 부각시킨 것은, 그의 사상과 음주와 시대상을 의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後漢末 三國이 정립했던 魏의 궁궐내의 암투와 삼국의 전쟁은, 玄宗과 肅宗의 皇帝 자리다툼인, 父子之間의 불화와 肅宗 李亨과 동생 永王 李璣의 불협음으로 安祿山의 군대와 싸움은 시대와 장소를 달리한 재연된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曹植은 어려서부터 文才를 인정받아 장래가 촉망되었지만 형인 曹丕와의 太子 문제 등으로 해서 알력이 있었고, 文帝 曹丕의 계속된 질투와 박해는 음주와 시 뿐이었다. 陳王 曹植은 시종 정치와 군사상 大事에는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불우한 나날의 울분은 그의 시 「美女篇」, 「白馬篇」, 「七哀」에 잘 나타나 있다.

玄宗의 승락없이 在位에 오른 肅宗 李亨과 명령에 의해 출진한 永王 李璣의 관계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제 二十一句에서 “主人”이라고 한것은 元丹丘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또한 元丹丘의 은거지에 초빙되어 가서 주연에 합석한 李白으로 보이게 했으니, 바로 그것이 장기이다. 무한의 정신세계에서 관조하는 道士와 자신을 대비시켰다. 詩人은 취중의 無我之境의 상태에서 오히려 정신상의 안정을 찾고, 본연의 자세인 예술세계에만 전념하겠다는 승고한 이상의 표현이다.

“五花馬”는 廬山을 위시한 五岳으로, 혹은 漢 武帝, 唐 太宗이 廬山을 등람한 적이 있었고, 陶淵明 및 李白 자신이 은거한 사실로도 볼 수 있다.

“千金裘”는 孟嘗君이 소유했던 孤白裘이니 역사적 典故이다.

“萬古愁”는 “萬古酒”라고 하겠으니, 현실세계에서 좌절하던 몽상의 세계로, 酒仙의 세계에서 살았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재기하여 이상을 꾀겠다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정신이 깃들여 있다고 하겠으며, 부귀공명은 一場春夢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4. 藝術性

李白은 현실의 세상만사가 여의치 않아 수심에 쌓일 때마다 음주로 시름을 없애려고 한 흔적은, 그의 음주시의 여러 首에서 볼 수 있다. 그는 기상천외한 道家의인 낭만주의 시인으로써 “將進酒”의 예술성이 보였다고 하겠다. 그는 권주가라는 뜻을 대담하게 시의 제목으로 삼아서, 새로운 형상을 조소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곧 새로운 意境을 창조한 것이다.

황하를 물의 이미지와 역사의 이미지로 연계하여, 물의 속성은 물론이려니와 황하 유역에서 전개되는 安史之亂에 의한 권력다툼과 백성들의 고초를 배경으로 천의무봉하게 시의 도입부분으로 했다. 또한 자신의 심리상태의 진폭도 스며 있게 했다. 高堂의 士大夫들의 안이한 생활 상태를 서술하며 “朝”와 “暮”를 대비시켜 인생무상을 읊었다. 그것은 또한 玄宗의 皇軍의 무력함과 반란군의 막강한 군사력을 황하로 전쟁과 고당으로 궁정을 또한 대비시켰다고도 할 수 있다. 人生은 회노애락의 연속이니 득의양양 하지 말고, 또한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다. 人生의 “明”과 “暗”의 반대 개념으로 진폭이 큰 예술적 성과를 올렸다.

名君은 인재를 적재 적소에 등용하는 것이고 暗君은 面從腹背자를 양육시켜 역사의 오점을 교

혼으로 예술적인 시로 표현하는 기교를 부렸다.

後漢末 魏王 曹操의 禁酒令에 대해서 그 부당성을 지적했다. 즉 淸酒는 聖人이고 濁酒는 賢人이니, 隱語를 무리없이 사용하는 예술 감각의 특수성을 볼 수 있다. 또한 술을 擬人化 했으니 낭만주의의 특색을 유감없이 표현했다. 술이 없는 세상은 전체정치이며 독재정치이다. 그래서 儒家의 聖인과 賢인은 “寂寞”할 수 뿐이었다. 그러니 한 단어가 양면성의 뜻으로 사용하여 불평불만을 토로했다.

時代와 空間을 초월한 李白의 상상력은 역사의 배경과 등장 인물의 성격 등을 알고 있어야 詩意를 파악할 수 있으니, 예측과 추측의 불능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將進酒”는 그의 대표작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그래서 본 작품에 대해서 “군사 전문가가 군대를 배치하는 것과 같다. 즉 금방 정상적으로 진용을 갖췄다가, 다시 곧 이상하게 배치해 버린다. 금방 이상하게 배치한 것을 곧 정상적으로 배치한다.”²⁷⁾ 장진주는 표면과 이면의 내용이 판이하여 先代 독자들이 즐겨한 까닭이라고 하겠다. 그의 「前有樽酒行, 二首」와 「春夜宴從弟桃花園序」에서도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5. 作品의 製作時期

본 장진주의 제작시기는 唐 玄宗시대만 같고 년도는 틀리게 주장하고 있으니 아래와 같다. 제작시기에 따라서 意境이 틀려지니 중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開元 二十四年(736)의 작품이다.

둘째, 天寶 四年(745)의 작품이다.

셋째, 天寶 十一年(752)의 작품이다.

등이 그 主流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各說들을 제기한 학자와 근거를 차례로 설명하면서 탐색 하겠다.

우선 첫째 설을 주장한 학자는 安旗이다.

「將進酒」一詩, 前此諸家均以爲是天寶間去朝之後所作, 誤. 綜觀李集, 一入長安以前作品感慨殊少, 更無牢騷: 二入長安去朝之後, 傷心備至, 牢騷特盛: 唯一入長安以後, 一入長安以後, 二入長安以前一段時期, 往往旋發牢騷, 旋又自慰.

「梁園吟」如此, 「梁甫吟」亦然, 「將進酒」尤爲典型.

〔「將進酒」一首의 시에 대해서 선배 학자들은 대부분 千寶 年間に 조정에서 쫓겨난 이후에 지은 작품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틀리다. 李白 시집을 종합적으로 보건데 처음 長安에 가기 이전의 작품에서는 자신의 느낀 바에 대해서 쓴 작품은 매우 적고 더우기 불평 불만은 없었다. 두번째, 翰林院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는 지극히 상심했고 푸념도 심했다. 처음 長安에 갔다오고 두번째로 長安에 가는 기간에는 가끔 불평 불만을 토론했으나, 그것은 자위적인 것이었다. 「梁園吟」이 그렇고, 「梁甫吟」은 더욱 뚜렷하고 「長進酒」는 전형적이다.²⁸⁾〕

28) 安旗, 前掲書, p. 297.

라고 하여서, 將進酒를 그의 저작물인 「李白全集編年注釋」의 開元 二十四년에 실었다. 또 開元 二十三年(735)에 대한 학설을 보겠다.

按此詩當是開元二十三年(七三五)從太原歸家後又被元丹丘請至嵩山時作。當時因岑勛至嵩山元丹丘處尋訪李白, 元丹丘請到嵩山相會, 李白有「酬岑勛見尋就元丹丘對酒相待以詩見招」記其事。

[이 시에서 보건데 開元 二十三年 (735)에 太原 지방을 유람하고 집에 돌아온 이후에 다시 元丹丘의 초청을 받고서 그의 거처를 방문했을 때의 작품임이 틀림없다. 당시에 岑勛은 이미 元丹丘의 거처에 와 있었기 때문에 李白도 내방하게 된 것이니 元丹丘는 嵩山에서 서로 만나자고 약속 했었다. 李白의 시에 「酬岑勛見尋就元丹丘對酒相待以詩見招」가 있으니, 그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²⁹⁾

라고 했으니 1年間의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거이 같은 시기의 작품이라고 보는 것이다.

둘째, 李白詩文繫年の [詩起句云 “君不見黃河之水天上來。” 則其地域在梁宋, 去黃河不遠]에³⁰⁾ 의한 학설이다. 「李太白詩歌全解」에서도 이것에 의해 서술하고 있다.³¹⁾ 「古代文學作品鑑賞」도 그렇다.³²⁾ 天寶 三·四·五年 쯤이다.³³⁾

이들의 학설을 종합해 간략히 서술하겠다.

李白은 天寶 元年(742)에 고대하던 궁중의 부름이었기에 쾌히 응락해서 長安에 가게되었다. 그때 그는 자기의 포부와 才能을 황제의 측근자로서 펼 수가 있고, 建功立業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서 매우 기뻐했다. 長安에 오고나서 처음 그는 문학의 천재라고 인정 받아서 여러 사람들을 탄복하게 했고 玄宗의 특수한 예우도 받았다. 그러나 얼마 안되어, 李白의 오만과 자부심, 예의에 벗어난 일거일동은 권력자들의 질시와 모략까지 받게 되었다. 그는 天寶 三年(734)에 長安에서 추방당하는 逐臣이 되었다. 그 이듬해까지 그는 梁宋(現 南開封과 商邱지역)을 만유하고 있었다. 그때 시인은 고민과 역울함으로 궁중안의 권력자들에게 증오와 분개한 마음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은거생활을 하면서 道教에 빠졌고 道籙을 받기도 했으니 곧 道士가 된 셈이라고 하겠다. 그곳에서 황하는 가까운 곳에 있으니 이때 쓴 작품이다. “岑夫子”, “丹丘生”은 天寶 四年전 후에 모두 梁園과 東魯일대에 있었으며, 元丹丘는 東蒙山(琅邪郡 서쪽)에 살았고 李白은 魯郡에 살았으니 가까운 거리이다.

魯郡은 梁園이 있는 兪陽郡의 서쪽에 있으니 아마도 그때 지었을 가능성이 많다. 고로 天寶 四年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셋째의 說에 대해서는 簫士贊의 「分類補注李太白詩」와 黃錫珪의 「李太白編年詩集目錄」에서 주장한 것이다. 李白은 당시에 친우 岑勛과 嵩山에서 다른 친구인 은거지인 穎陽山の 집으로 가서, 세 분이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었으니 그때의 즐거웠던 상황을 쓴 것이다. 또한 그때의 작품으

29) 郁賢皓, 「李白選集」, 上海古籍出版社, 1990, p. 125.

30) 唐鑑, 「李白詩文繫年」,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4, p. 61.

31) 大野實之助, 前掲書, pp. 310~313.

32) 「古代文學作品鑑賞」揚明, “說李白將進酒詩.” 上海古籍出版社, 1988, p. 272.

33) 王運熙, 揚明, “將進酒의 寫作年代”, 「李白研究論叢」四川, 巴蜀書社, 1987, p. 215.

로 「酬岑勳見尋就元丹丘對酒相待以詩見招」가 있다.³⁴⁾

필자의 견해로는 至德二年(757)의 작품이라고 하겠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按史之亂으로 인한 황하유역의 황무지화와 자신이 피난하면서 목격한 무고한 백성의 고통에 대한 울분

둘째, 황하유역을 玄宗이 太子 李亨에게 평정하도록한 조치는 도외시하고, 李亨이 帝位에 임의 데로 오른 사실과 永王 李璘과의 싸움에 대한 비난.

셋째, 曹植을 시인이 詩句에 써서 後漢末 魏王 曹操와 太子 曹丕와 陳王 曹植과의 三父子의 관계가 玄宗 三父子와의 유사점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점.

넷째, 시인이 永王 李璘의 東巡에 참여와 부역죄로 인한 生과 死의 심리적 고통.

다섯째, 시인이 翰林學士 생활끝에 梁宋일대들 高適, 杜甫와 함께 노닐던 것을 회상하여 시운이 불리한 점.

여섯째, 彭澤은 시인이 연모했던 陶淵明이 彭澤승에서 사직하고 귀향했던 곳이기에, 자신의 비운을 비유시킨 점.

李白이 天寶 初年間에 梁宋·東魯일대에 있었으니 “五花馬” “千金裘”가 詩句에 있는 것을 부합시켜서 그 때의 작품이라 하든가, “岑夫子”, “丹丘生”이 그 곳에 있었으니 그 곳에서 지었다고 하는 것은 逐語譯적인 생각이다. 시인의 時空을 초월한 상상력에 의한 비약적인 사고도 필요하다.

李白 “廬山東南五老峰”(「五老峰與屏風疊」)의 “五老峰”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섯 양상의 노인으로 보이는데, 바람에 표일하는 詩仙도 물론 포함된다. 약 삼년후에 그는 “我本楚狂人”(「廬山謠寄盧侍御虛舟」)라고하여 좌절감이 극치에 도달할 경우 변태심리학 상태의 표현이다.

Ⅲ. 結 論

李白은 蜀에서 학습연마에 열중했으며 주변 분위기에 젖어 道家사상에 심취하는 동기가 되었다. 그래서 본연의 유가사상과 합치되어 唐代的 복잡다양한 思想처럼 그도 그러한 복합 사상으로 일관했다. 특히 그는 趙蕤의 「長短經」의 主旨인 “王霸大略”, “經濟之才”, “帝王之術” 등이 큰 영향을 주었다.

그의 성격은 “俠”과 “仙”의 바탕에서功名욕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방랑하며 意氣의 豪邁함을 키워 성격화 했다. 그래서 그는 소위 盛唐期라는 궁정의 권력자의 정치적 부패로 직접 翰林院 생활을 통해서 목격했고 체험했다. 그는 道士들을 통해서 “終南捷徑”을 택했었고, 長安에서 축출된 이후에도 계속 재기의 길을 걸었지만 如意치 않았다. 그럴 때 마다 음주로 자제했다.

34) 「唐詩鑑賞辭典」, 周耀天, 「將進酒」, 上海辭書, 「唐詩精華分卷」, 周福瑞, 陶文鵬, 「將進酒」北京, 朝華出版社, 1991, p. 261.

그의 豪邁한 성격은 술과 어우러져 웅장 거대한 시를 썼는데, 題材나 題目도 거대하고 담대한 것으로 천의무봉하게 일필휘지로 교직시켰다.

본 「將進酒」는 樂府로써 “人生易老”와 “功業難成”의 비애를 흔히 古典詩歌에서 쓰여졌던 것이다. 그러나 李白은 舊題로 새로운 意象을 창출해 냈으니, 舊瓶에 新酒를 넣었다고 하겠다.

李白的 將進酒는 다른 어느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세등등한 독특한 風格을 지녔다.

우선 그는 黃河之水로 물의 이미지와 安史之亂으로 목격한 백성의 피폐한 상황을 자신의 豪邁한 기질과 독특한 詩人의 감정으로, 詩의 첫句부터 표현했다. 그것은 시인 자신의 강력한 공명욕이 거대한 암초에 부딪친 굉음이며 포효였다.

큰 포부와 자신감은 타인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었다. 翰林院에서의 放逐은 한 번의 교훈으로 삼고서 현실세계를 부단히 뛰어 다녔지만, 만사휴이의 좌절감 역시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천진난만한 정도의 표현 “天生我材必有用”으로 충천한 사기와 기백을 보였다. 後漢末 三國時代 魏의 曹三父子의 역사적인 典故로 玄宗三父子를 對比시켰다. 정치상의 실패와 좌절감을 道士인 岑勳과 丹元丘에게 하소연했다. 주연석상의 분위기를 일신시키기 위해서 詩中有詩 “鐘鼓饌玉不足貴”로 고조에 달했다.

將進酒(勸酒歌)로 “萬古愁”를 萬古酒로 해소시키고 萬古絕唱의 詩로 남기겠다는 酒仙 자신의 마지막 음성이고 대답인 것이다.

李白的 “濟蒼生”, “安社稷”의 儒家사상과 “求仙學道”, “隱逸生活”의 道家사상은 痛飲高歌의 본 「將進酒」에 함축되었다고 하겠다. 또한 酒仙(醉仙)의 眞面目과 豪邁한 성격으로 정면 돌파하여 낭만주의의 꽃을 피웠다.

Summary

A Study of Li bai's (李白) 「Qiang jin jiu」 (將進酒)

Ih-Boo Kwak

In ancient China, political scholars enlarged their circles of friends, enjoying drinking one another. When they discussed politics and literature, meeting-drinking was necessary way of life.

'Tang'(唐) times, which was an ancient civilized, country considered poem-writing important. The reason was that 'Tang'(唐) men had to learn poetry to become high class scholars and statesmen, who were compelled to select poetry as the subject of the Higher Civil Service Examination. In other words, 'Tang'(唐), where the statesmen were poets, was a civilized country and powerful country.

'Qiang jin jiu」 (將進酒) was a subject of any poem that had been used since 'pre-Tang'(唐) times. while Li bai(李白) studied poetry and Taoism in Si Chuan(四川), he left his hometown 26 years old. He, who preserved great hopes in his mind, kept society with poetry and Taoism-men(道教徒).

When he was 42 years old, he became one of the Han Lin Xueshe(翰林學士), thanks to Xuan Zong(玄宗), or the emperor of 'Tang'(唐). He has kept society with Taoism-men(道教徒) and Tang's(唐) Imperial Family recommended him. But Li bai(李白) terminated his Royal Court life, leaving only 2 years in the Royal Court, because he enjoyed drinking and prided himself on his fame.

Emperor Xuan Zong(玄宗) made 'Tang'(唐) the most prosperous devoting himself to national politics, but went deep into wine and women as he grew older. The Emperor's delinquency rose in An Lu Shan's(安祿山) rebellion. Xuan Zong(玄宗) fled to Si Chuan(四川) and Su Zong(肅宗) put down An Lu Shan(安祿山) with a Xuan Zong's(玄宗) order. But Su Zong(肅宗) took away the position of Emperor without discussing his parent.

Su Zong(肅宗) fought a duel with his younger brother, Yong Wang(永王) on the other hand, Li bai(李白) was engaged in the Yong Wang's(永王) camp and was captured without realizing those circumstances. At this time, Li bai(李白) met a political failure and then created a poem which described offering wine.

This is 「Qiang jin jiu」 (將進酒) by written Li bai(李白) 「Qiang jin jiu」 (將進酒) focused on struggled of succeeding a crown among Xuan Zong(玄宗), Su Zong(肅宗) and Yong Wang(永王), An Lu Shan's(安祿山) rebellion and his own political failure. In other words, his poem purified his complexed spirit as a truth, with the water of Yellow River flowing to the sea.